

한국 일본 중학생의 해양 관련 인식도 비교 연구

안희수* · 이태천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 관련 인식을 검사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한국과 일본 중학생들에게 투입하여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해양 관련 인식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양 교육의 체계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해양 관련 인식을 해양에 대한 호감도, 해양 관련 직업인식, 해양의 중요성 인식, 해양에 대한 부정적 사고의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검사지를 개발하고 한국 서울과 일본 북강현의 중학생 총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양국간에 4가지 요인 점수를 3원 분산 분석하여 비교하고 각 요인을 다시 요인 분석하여 하위 요인으로 분류한 뒤 하위 요인 점수를 t-test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일본 학생들은 해양 관련 인식도에 유의미하게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에 비해 높은 해양에 대한 호감도와 해양 관련 직업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양에 대한 부정적 사고가 적었다. 일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 해양의 중요성 인식이 높았다.

4가지 요인을 각각 하위 요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호감도의 하위 요인 분석 결과 일본 학생들이 바다의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한국 학생들은 바다에 대한 접근도 및 바다에 대한 심리적 친밀도가 더 높았다. 양국 학생들은 해양 스포츠 흥미나 바다에 대한 지적 관심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 인식의 하위 요인 분석 결과 양국 학생들의 해양 관련 직업 선호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 학생들의 해양관련 직업의 가치인식이 더 높았다. 해양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하위 요인 분석 결과 한국 학생들은 해양개발의 필요성 인식이 더 높은 반면 일본 학생들은 해양과의 관련성 및 해양 환경 보존 인식이 더 높았다. 해양에 대한 부정적 사고의 하위 요인 분석 결과 한국 학생들이 개인적 영역 뿐 아니라 사회적 영역과 관련된 부정적 사고가 모두 적었다.